의복의 쾌적성 측정기

일본의 인테크社는 다양화된 섬유제품의 쾌적성 및 적응성을 평가하는 “ 의복 쾌적성 측정기 PTH-2형 ” 을 개발하였다. 현대의 의복은 단순한 패션뿐만 아니라, 착용시 쾌적성, 착용목적에 따른 기능 · 적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. 신체와 의복사이의 쾌적성은 주변 온도에 관계없이 보온, 투과 온습도, 함유수분율, 열전도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. 이 기기는 위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의복의 쾌적성, 적응성, 기능성을 평가하고, 다기능성 섬유의 연구개발, 가공기술 및 패션과 쾌적성간의 관계를 상호 비교하게 한다. 종전에는 각 항목의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였으나, 시료 1장으로 6개 항목(보온성, 통풍성, 투습성, 투온성, 함유수분율 변화, 표면온도 변화)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기능성 섬유의 평가 및 일반제품과 신제품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으며, 측정평가가 곤란한 부직포나 위생재료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. 측정된 자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나며 시험이 끝난 후 출력이 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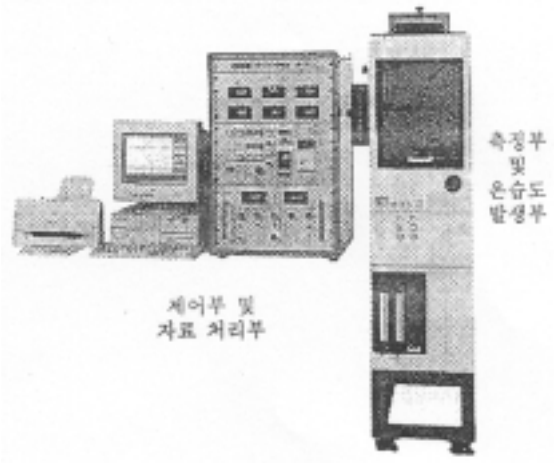
<기기사양>

· 의복의 시료 크기: 100×100mm,

· 模擬 人體 설정온도: 30 60℃,

· 의복內 설정 온습도: 온도범위 30 50℃, 습도범위 20 95%

· 기기 구성: 시험항목 측정부, 온습도 조절부, 자료 처리부, 디지털 표시부, 프린터



<그림> 측정장치